이매리 작가, 베니스 비엔날레 기간 중 초대전

이탈리아 에밀리하비 재단 초대 19일~6월 28일까지 '제네시스'전

검은 캔버스에 금으로 쓴 글씨…창세기·불경 등 새긴 작품 36점 전시

베니스비엔날레는 전 세계 미술인들이 선망하는 미술 축제다. 2년에 한번씩 전 세계 아티스트와 예술 관련 인사들은 베니스로 모여들어 작품을 전시하고, 세계 미술 트렌드를 만들어간다.

코로나 19로 1년 연기된 올해 베니스비엔날레(4월23일~11월27일)를 이끈 세실리아 알레마니 예술감독은 전 세계에서 213명의 작가를 초청, 본 전시를 꾸민다. 메인 행사인 본 전시와 별개로 올해 역시 베니스는 전 세계 아티스트들의 각축장이 된다. 세계 유수의 문화재단이 개별 초대전을 꾸리고, 세계 유명 갤러리들도 대표작가를 알리는 전시회를 준비중이다.

지역에서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매리 작가가 베니스비엔날레 기간 중 초대전을 갖는다.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베니스 산 폴로 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매리 : 제네시스(GENESIS·창세기)'전이다. 이탈리아 에밀리 하비 재단 초대로 갖는 개인전으로 전시 기획은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큐레이터 탈리아 브라초포울로스가 맡았다. 이번 초대전은 탈리아가 2019년 재단에 제안했고, 지난해 11월 개최가 결정돼 준비를 해왔다.

이 작가는 중국 히말라야뮤지엄 초청으로 지난 2015년 파빌리온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다. 베니스 입성에 의미는 있었지만, 13인의 참여 작가 중 한 명으로 참여해 아쉬움이 컸다. 이후 관람객으로 베니스를 찾았던 그는 '전시'에 대한 꿈을 잃지 않았고, 이번에 소망을 이루게 됐다.

"전 세계 아티스트라면 베니스 비엔날레 기간 중 베니스의 갤러리에서 자신의 작품 세계를 펼쳐보이고 싶은 꿈이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죠. 아주 규모가 큰 갤러리는 아니지만 재단이 갖고 있는 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초대전은 저에게 의미있는 기획입니다. 저랑 17년간 인연을 이어온 탈리아는 '하이힐'부터 제 작업을 꾸준히 지켜봤어요. 제가 작업에 대한 고민으로 멈칫하는 순간도 다 봤구요. 새 시리즈를 시작했을 때는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죠. 제 작업을 오래 지켜보고, 아껴온 큐레이터와 함께 전시회를 꾸리게 돼 참 감사하지요."

두 사람의 인연은 지난 2004년으로 올라간다. 광주비엔날레에 초대돼 광주를 방문한 그는 광주의 드라마틱한 역사와 모습에 감명을 받았고 당시 뉴욕에서 준비중이던 아시아 작가전에 당초 초대키로 한 서울 작가 대신 광주시립미술관을 통해 이매리 작가와 현수정 작가를 소개받아 전시회를 꾸렸다.

이번 전시에서 이 작가는 모두 36점을 전시한다.

이매리 하면 떠오르는 작품은 역시 강렬한 붉은색의 '하이힐'이다. 지난 2014년부터 하이힐을 이을 작업들을 고민한 이 작가는 캔버스에 24K금으로 글씨를 쓰는 작업을 '의식처럼' 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시리즈의 출발이 됐다.

전시작들은 인류의 근원을 상징하는 '창세기'와 함께 '금강반야바라밀경' 등에서 발췌한 구절을 검은 캔버스에 순금으로 써내려간 작품들이다. 인류사의 여러 모습을 기록하는 공간이자 방법을 인류의 탄생, 인간의 삶과 죽음 등으로 보여주는 창세기와 불경의 각 글귀는 라틴어, 영어, 히브리어, 한국어로 등으로 세밀하게 쓰였다.

전시장을 마치 '성소(聖所)'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던 큐레이터와 작가는 검은 캔버스에 그린 36점의 작품을 벽면에 '띠' 처럼 배치하고 갤러리 공간 자체도 마치 하나의 설치작품처럼 구상했다. 신자들이 불탑 주위를 돌며 예를 표하는 불교의 '탑돌이'처럼 관람객들은 한명의 퍼포머가 돼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소망과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과정을 함께한다.

이 작가는 개막식 날 전시장 벽면에 직접 금으로 텍스트를 쓰는 퍼포먼스도 진행한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 대해 "인류의 근원이자, 나의 근원이자, 보고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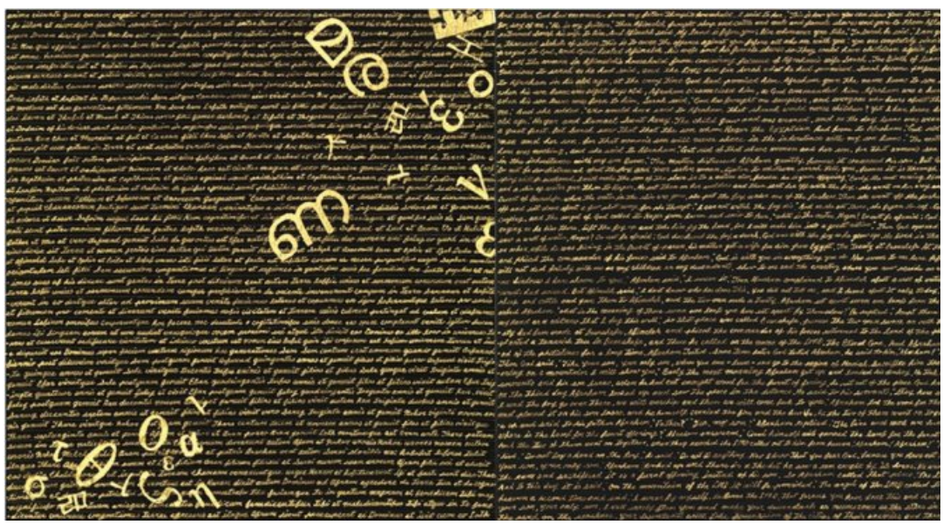
"창세기가 인류의 출발과 진행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이 작업의 과정은 나의 삶의 궤적이자 의미입니다. 14세기 고려불화에서 보았던 옷자락의 오묘한 라인을 지극히 현대적인 모습으로 나타내고 싶다는 열망을 늘 갖고 있었어요. 캔버스에 금으로 글씨를 쓰면서 중첩되는 라인의 그 느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과정은 저에게 명상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나의 본성과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구요, 제 필체 자체가 조형성을 갖고 있고, 금이라는 재료가 주는 아름다움이 편안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과 메시지가 함께하는 작품을 하고 싶어요. 제 작업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존재하게 될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매리 작가

그는 '빨간 하이힐'이 감각적이 아이콘이었다면 기호와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요즘 작품은 인류를 관통해온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에는 한국 작가 중 정금형·이미래 작가가 참여하며 국가관 전시 중 한국관에서는 김윤철 작가가 '캄파넬라:부풀은 태양'을 주제로 전시한다. 또 박서보·하종현·이건용·전광영 화백 등도 퀘리니 스탐 팔리아 재단에 등의 주최로 현지에서 초대전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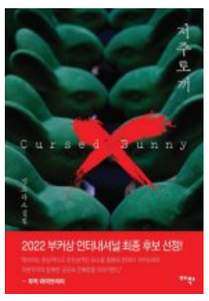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GENESIS'

정보라 '저주 토끼' 부커상 최종 후보 올라

유머와 호러가 인상적인 판타지 소설 정보라 작가의 '저주 토끼'가 세계 3대 문학상인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부커재단이 지난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보라의 '저주 토끼'가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 6편에 선정됐다. 함께 1차 후보에 올랐던 박상영 작가의 '대도시의 사랑법'은 안타깝게 최종 후보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 작가의 작품이 이 부문 최종 후보에 포함된 것은 세 번째다. 지난 2016년 한강 소설가의 '채식주의자'가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했으며 2018년 역시 한강의 다른 소설 '흰'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2019년에는 황석영 소설가의 '해질 무렵'이 1차 후보에 올랐지만 최종 후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최종 후보에 오른 '저주 토끼'의 번역은 스웨덴에서 태어난 한국인 번역가 안톤 허(본명 허정범)가 맡아 눈길을 끌었다. 외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안톤 허는 2018년부터 신경숙의 '리진'과 '바이올렛', 황석영의 '수인' 등을 번역했다.

정보라 작가의 '저주 토끼'는 세상의 몹쓸 것들을 응징하는 어여쁜 저주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SF 판타지를 대표하는 정 작가의 다섯 번째 책으로 모두 10편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배경과 인물, 사건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저자는 특유의 상상력으로 복수라는 소재를 환상적으로 풀어낸다.

저자는 책에 대해 "세상은 대체로 사납고 낯설고 가끔 매혹적이거나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 그럴 때조차 근본적으로 야만적인 곳"이라며 "등장인물(혹은 등장토끼 혹은 등장로봇)들은 사랑하거나 기뻐하기보다는 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욕망하고 분투하고 배신하고 배신당하거나 살해하거나 살해당하는 방식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세상과 교류한다"고 말한다.

정 작가는 연세대 인문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에서 러시아 동유럽 지역학 석사를 졸업했으며 인디애나대에서 슬라브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학에 출강하며 소설을 쓰며 러시아를 비롯한 슬라브어권의 SF·판타지 문학을 번역한다.

한편 올해 최종 후보에는 201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폴란드 작가 올가 토카르추크의 '야곱의 책들', 노르웨이 욘 포세의 '새로운 이름', 일본 가와카미 미에코의 '천국', 아르헨티나 클라우디아 피네이로의 '엘레나는 안다', 인도 지탄잘리 슈리 '모래의 무덤'이 선정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꽃을 노래하다'

14일 북구 청소년수련관

우리 가곡을 함께 부르고 배우는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제 147회 공연이 오는 14일 오후 7시 광주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4월 공연인 이날 무대는 '꽃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꾸며진다. 이번 무대에서 회원들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신작 가곡과 광주 지역 시인들이 작사한 가곡 등 꽃을 소재로 한 다양한 가곡을 연주한다.

추억의 노래 시간에는 '4월의 노래'와 '한 송이 흰 백합화'를 함께 부르며, 정다운 노래로는 '천리향', '내 사랑 마아가렛', 사랑의 노래 시간에는 '목련', '섬초롱꽃' 등을 들려준다.

회원들은 '상사화', '또 한 송이의 나의 모란', '산유화', '코스모스를 노래함', '봉숭아', '들국화', '도라지꽃', '가시꽃 사랑', '내 사랑 망초여', '진달래', '목련화', '진달래꽃', '꽃 구름 속의' 등 22곡의 노래를 선보인다.

이날 무대에는 소프라노 서옥주·유덕희·정난임·유양업·김영미·김유희·나인희·정인숙·고재경·심옥효·김종례·김명희와 테너 박상휘·강삼남·박방원·조정식·김종석, 메조 소프라노 조정옥·박원자, 바리톤 이길호·박황수·윤길이 함께 한다.

한편 5월에 열리는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는 '불멸의 사랑 그 찬란함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전석 초대. 문의 010-2694-4592.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 전남 우리가곡부르기' 공연 모습.

'매화향기'

'매화의 향기, 고결한 기운'

오광섭 초대전, 13일~5월10일 드영미술관

서양화가 오광섭 작가의 트레이드 마크는 인물화다. 그 중에서도 무대 뒤 발레리나들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이 많은 이들에게 각인돼 있다. 오 작가의 새로운 변신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무등산 자락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이 오광섭 초대전을 오는 13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한다.

전시 주제 '달빛 매화의 合唱 & Rehearsal'처럼 이번 전시에서는 몇년 전부터 천착하기 시작한 매화 그림과 함께 대표 시리즈인 '리허설' 연작을 함께 선보인다. 전시작은 20여점이다.

'매화 향기', '매화-담다' 등 그가 그려낸 매화 작품들은 작가가 자신만의 기법으로 묘사해 눈길을 끈다. 세세한 묘사 대신 점들이 모여 이루어진 장면들은 색다른 느낌을 전달한다.

달빛 아래 매화 향기를 맡으며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는 작가는 매화의 고결한 기운과 향기를 통해 개인에 대한 성찰의 메지도 함께 담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대표작인 '리허설' 연작은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닌, 무대 뒤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해 눈길을 끄는 작품들이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무대를 뒤로 하고, 그 공연을 위해 끝없이 연습하고 있는 무용수들의 자연스러운 포즈를 담아낸 작품들은 공연을 앞둔 발레리나의 긴장감과 설레임까지도 함께 엿볼 수 있다.

공연을 준비하는 분주한 모습과 반복되는 휴식을 취하는 소녀 발레리나들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오 작가는 개인전 7회, 단체전에 250여 회 참여했으며 한국미술협회, 한국현대인물화가회 및 신형회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CC '방문연구 프로그램' 5월3일까지 연구자 모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이강현)은 '방문연구 프로그램(ACC_R Fellow)' 입주 연구자를 오는 5월 3일까지 모집한다.

'방문연구 프로그램'은 아시아 이야기를 비롯해 의식주, 공연·의례, 이주 정착등 아시아문화 5대 영역을 중심으로 아시아인의 삶과 문화를 조명하는 국내외 연구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견연구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을 5편 이상 인정받은 자가 해당된다.

신진연구자는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최근 5년간 연구업적 3편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연구자로 선정되면 오는 6월 20일부터 10월까지 희망기간 내 연구를 진행, 연구비와 숙소 및 연구실 등을 제공받는다.

한편 ACC는 방문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39명의 연구자를 지원했으며 지난 2015년 참가한 이용성 박사는 튀르크학 한국 소개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터키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한 연구 결과물은 '교차하는 아시아' 6종으로 출간한 바 있다. 문의 062-601-451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최명희문학관 '대한민국 초등학생 손글씨 공모전'

최명희문학관이 '제16회 대한민국 초등학생 손글씨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열고 있다. 올해로 16회째인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에는 전국 219개교에서 1251명이 응모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멈춰버린 일상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와 의료진을 향한 감사의 글이 많았다.

올해 역시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일기가 대상이며 자신의 손글씨를 뽐내고 싶은 초등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희망자는 최명희문학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오는 9월 13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전북 전주시 완산구 최명희길 29)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품 20만원 상당을 주는 등 모두 113명의 학생에게 상장과 상품을 선물한다.

수상 작품은 손글씨블로그와 최명희문학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게재되며 10월 18일부터 3개월 동안 최명희문학관 마당에서 전시된다. 문의 063-284-057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